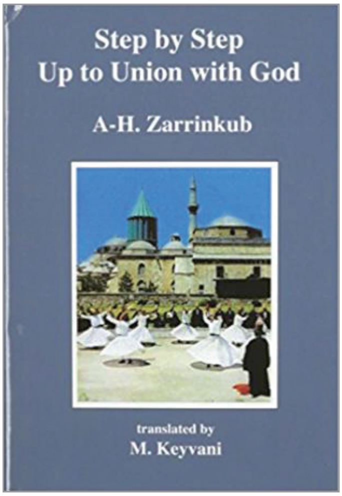

제목	Step by Step Up to Union With Go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Eisenbrauns
발행일	2009. 6. 30.
저자	Abd Al-husayn Zarrinkub M. Keyvani(번역자)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410
ISBN 또는 ISSN	978-1934283158

내용 요약

『신과의 합일을 향해 한 걸음씩』은 루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생을 다룬 책이다. 루미는 1207년 아프가니스탄의 발흐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가족은 몽고의 침입을 피해 고향을 떠나 당시 셀주크 투르크의 수도인 콘야에 정착했다. 루미의 아버지 바하우딘(Bahauddin)은 위대한 종교학자로서 콘야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루미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발흐의 부르하네딘(Sayyid Burhaneddin of Balkh)으로부터 영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부르하네딘은 루미가 24살 정도가 되었을 때 콘야로 와서 거의 9년 동안 루미에게 40일 피정을 비롯해서 명상과 단식 등 엄격한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전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미는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37세에 영적 부랑자 샴스 타브리즈를 만났는데, 그 전까지 수피와 신비주의 영역에서 저명한 교수생활을 했던 루미는 그와의 짧은 해후로 영감에 찬 시인이 되었고 인본주의 애호가가 되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과의 합일을 동시에 꿈꾸고 실현시킨 루미는 연인과의 합일 상태를 빙빙 도는 수피 춤으로 표현하는데, 수피들이 '신과의 합일을 향해'한 걸음씩 내딛는 모습은 황홀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의식 상태에서는 현기증을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균형을 도무지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수피들의 움직임이 경이롭다.